



최희섭

빠르면 전반기 KIA에서 뛴다

‘빅쇼이’ 최희섭(28·탬파베이)이 빠르면 전반기부터 호랑이 유니폼을 입고 지명타자로 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KIA 구단의 한 관계자는 2일 “최근 구단에서 최희섭의 에이전트와 국내복귀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연봉 문제만 해결된다면 국내 복귀도 시간문제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해외파 우선지명에 긍정적 반응 연봉 서재응급(120만달러) 요구

최희섭이 복귀할 경우 최창양(전 삼성), 최경환(롯데), 이상훈, 조진호(이상 전 SK), 이종범(KIA), 정민철(한화), 정민태(현대), 조성민, 구대성(이상 한화), 봉중근(LG), 권윤민(KIA), 최항남, 김일엽, 송승준(이상 롯데)에 이어 15번째로 국내 복귀파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돈’이라는 말이다. KIA에선 계약금과 연봉을 합해 1년동안 15억 원선에 옵션과 다년 계약까지 제시한 반면 최희섭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서재응(연봉 120만달러)급의 대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양측의 계약 조건이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홈런타자가 절실한 KIA나 메이저리그에서 자존심을 구긴 최희섭도 더 이상 미국에 머물 이유가 없어 계약서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최희섭은 보스턴에서 탬파베리로 옮겨 메이저리그 재입성을 노렸지만 지난달 23일자로 마이너리그행을 통보 받은 상태다. 탬파베이 25인 로스터에는 능력이 뛰어난 1루수들이 많아 최희섭의 올 시즌 메이저리그 승격은 어렵다는 것이 현지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여기에 KIA도 광주 출신인 최희섭의 상품성과 지명도를 고려해 봤을 때 투자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

해지고 있다. KIA는 우선 이종범을 이월 프랜차이즈 스타의 발골이 절실한 상황인데 ‘광주 토박이’인 최희섭은 KIA측의 입맛에 가장 걸맞는 대물이다. 또 최희섭이 지난해 말 탬파베이와 2년 최대 195만달러(약 17억원)에 스플릿 계약(마이너리그 강등시 낮은 연봉을 받는 분리계약)을 하면서 이적료 없이 팀을 떠날 수 있다는 옵션을 계약조건에 삽입, 국내 복귀에 어려움이 없다는 점도 매력이다. KIA구단의 또 다른 관계자는 “최희섭은 침체된 프로야구의 흥행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카드다”면서 “특히 현재 마땅한 프랜차이즈 스타가 없는 상황에서 최희섭의 상품 가치는 충분하다. 계약만 성사된다면 당장 올 시즌 초반부터 광주구장에서 최희섭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섭이 올 시즌 KIA에 합류한다면 곧바로 지명타자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정환 KIA 감독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만약 최희섭이 온다면 일단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일단 기량 등을 체크해 봐야 한다”면서 “타격감만 괜찮다면 서튼을 외야수로 돌리고, 최희섭을 지명타자로 쓸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1일 최희섭 등 해외파 6명에 대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올 시즌 조건 없는 복귀를 허용했고, KIA는 지난달 28일 최희섭을 ‘해외파 우선지명선수’로 확정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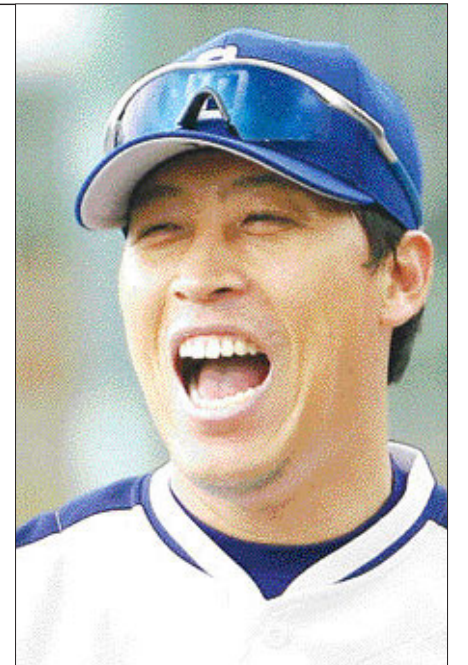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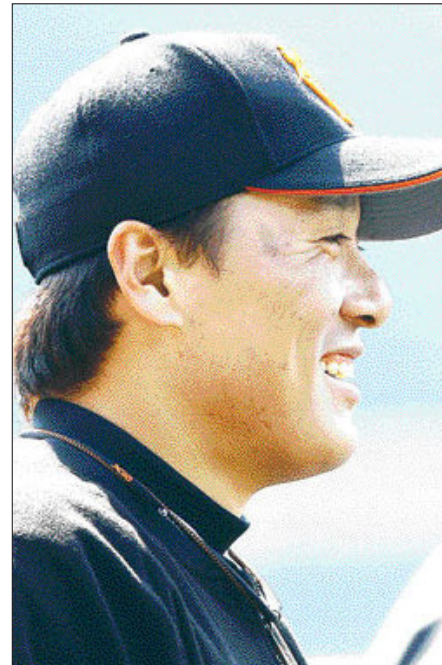
■ 해외파 야구선수 특별지명



김병현 → 현대 SK ← 추신수

미국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김병현(28·콜로라도)과 추신수(25·클리블랜드)가 국내 구단인 현대와 SK에 각각 지명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일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해외진출선수 특별지명회의’를 열고 1999년 이후 해외에 진출한 뒤 5년이 경과한 김병현과 추신수, 유재국(24·탬파베이), 이승학(28), 채태인(24) 등 5명을 대상으로 국내 복귀를 위한 드래프트를 실시했다. 이날 추첨 결과 1번 지명권을 획득한 SK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서 뛰고 있는 외야수 추신수를 선택했고, 2번 지명권의 LG는 올 시즌 탬파베이 데블레이스의 개막전 엔트리에 포함된 우완투수 유재국을 뽑았다. 3번 지명권을 행사한 두산은 즉시 전

력강인 투수 이승학(28)을 뽑았고 4번 삼성은 역시 투수인 채태인(24)을 지명했다. 5번 지명권의 현대는 언더핸드 김병현을 지목했으며 6번을 뽑은 한화는 해당자가 없어 뽑지 못했다. 이날 뽑힌 5명의 선수 중 현재 무소속인 이승학과 채태인은 곧바로 두산과 삼성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지만 미국프로야구에서 활동중인 김병현과 추신수, 유재국이 올 시즌 국내 구단에 입단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해외진출선수 특별지명’은 해당 구단이 지명권을 영구히 보유하는 가운데 타 구단에 양도할 수 없으며 입단계약을 맺은 이후에는 1년간 트레이드를 할 수 없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승업 오늘 맞대결 병규

일본프로야구에서 활약 중인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과 이병규(33·주니치 드래곤스)가 3일부터 사흘간 도쿄돔에서 팀 승리와 개인의 명예를 걸고 첫 한국인 타자 대결을 벌인다. 이번 3연전은 요미우리의 홈 개막전인데다 정규 시즌 첫 라이벌전이라는 점에서 일본 팬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또 한국프로야구에서 대표적 재계 라이벌인 삼성 라이온즈와 LG 트윈스의 간판 타자로 오랜 기간 활약해 온 이승엽과 이병규가 센트럴리그에서도 호적수로 꼽히는 요미우리와 주니치의 대표 타자로 방망이 솜씨를 뽐낼 예정이어서 이를 바라보는 현지 언론의 시각도 자못 비상하다. 상승세를 탄 쪽은 이병규다. 이병규는 3경기 연속 안타와 2경기 연속 타점을 올리며 팀 승리에 적잖은 힘

을 보냈다. 이병규는 찬스에서 해결사 능력을 입증하며 일본 야구에 빠르게 적응 중이다. 반면 이승엽은 개막전에서 2년 연속 홈런을 쏘아 올리기는 했으나 아직 타격 컨디션이 바닥권이다. 시즌 타율도 0.200(10타수 2안타)으로 이병규의 타율 0.250(12타수 3안타)보다 떨어진다. 잘 해야 한다는 부담도 이병규가 훨씬 적은 편이다. 일본 최고 연봉(6억5천만엔 추정)을 받은 이승엽은 요미우리 타선의 핵심 선수로 찬스에서 책임감을 발휘해야 한다는 부담을 떨칠 수 없다. 한국인 타자 맞대결의 요미우리가 주니치와 시즌 첫 격돌에서 지난해의 열세(6승16패)를 뒤집을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인기있는 팀’ KIA 2위

프로야구 구단 지지도 설문

국내 프로야구 8개 구단 중 가장 팬이 많은 구단은 삼성 라이온즈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최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5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성이 16.6%의 지지를 받아 가장 인기있는 구단으로 뽑혔다고 2일 밝혔다. 삼성에 이어 KIA 타이거즈 10.2%, 롯데 자이언츠 9.0%, 한화 이글스 7.7%의 지지를 각각 받았다. 뒤를 이어 LG 트윈스 4.8%, 두산 베이스 3.7%, 현대 유니콘스 2.2%, SK 와이번스 1.0%의 지지율순이었다. 야구 팬들이 특정 구단을 좋아하는 이유는 ‘연고지 때문’이라는 응답이 60.9%로 주류를 이뤘고, ‘좋아하는 선수가 그 구단에 있어서’가 16.3%, ‘야구를 재미있게 해서’는 8.7%, ‘모기업이 마음에 들어서’가 5.8% 순이었다. 또 국내에서 활동하는 선수 중 가장 좋아하는 선수를 2명까지 응답을 받은 결과 이종범(8.5%)이 가장 많았고 양준혁(4.8%), 구대성(3.4%), 이대호(2.2%), 송진우(1.6%) 차례였다. /박진표기자 lucky@



2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삼성생명배 2007 여자프로농구 챔피언결정 3차전 안산 신한은행과 용인 삼성생명의 경기에서 신한은행 주원이 레이업슛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한은행 “1승 남았다”

삼성생명에 74-68 승 여자프로농구 챔프 3차전

안산 신한은행이 삼성생명배 2007 여자프로농구 겨울리그 챔피언에 1승만을 남겼다.

신한은행은 2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챔피언 결정전(5전3선승제) 3차전에서 정예 멤버의 고른 활약을 앞세워 74-68로 승리를 거뒀다. 2승1패의 신한은행은 4일 같은 장소에서 오후 2시에 열리는 4차전을 이기면 사상 첫 통합 우승이자 2005 여블리그에 이어 통산 세번째(청주 현대 시절 포함) 챔

피언에 오른다. 챔피언 고지에 오르는 고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3차전에서 신한은행의 ‘거탑’ 하은주(14점·8리바운드)와 ‘노장 용병’ 태즈 맥윌리엄스(28점), 쿨은 일을 도맡은 정선민(4점·6리바운드·4어시스트·3가로체기), 최운아(14점) 등의 활약이 고무 빛났다. 삼성생명은 로렌 잭슨(27점)이 부지런히 미들슛을 견지고, 이윤희가 외곽포를 터뜨려 종료 1분여가 남았을 때 62-72로 10점차까지 따라잡았지만 시간이 모자랐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